

칼럼

김윤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조국, 즉각 사퇴하고 검찰 수사 받아야 한다

어떤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정치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권력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을 수도 있다. 민심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국민이 세상의 주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장난이 아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딸 타고 금메달이라도 뒀고 이화여대에만 국한되었다. 조국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단국대, 공주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등 다섯 개 대학과 한 개 고등학교에 걸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딸의 가장 큰 문제는 인본계 외국어고 2학년 학생이 2주 인턴으로 의사나 박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실험해서 쓰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이다. 저자 소속도 고교생이 아니고 단국대 의과연구소 소속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기재했다. 실제 논문이 완성된 후에 인턴도 했다.

나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열 중해서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 자동차를 어디에 주차한지를 잊어버렸다. 새벽 2시경에 도난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자고 있는 아파트 기술직 직원들을 깨워서 한 달 전부터 녹화된 폐쇄회로 TV(CCTV)를 돌려서 본 적도 있다. 나는 한국정치

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논문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학회(學會誌)에 논문을 게재하는 문제는 박사 학위 소지자인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단국대 담당 교수에게 논문 취소를 권유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학회는 조국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로 죽음의 노트, 데스 노트(Death Note)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하여 '이상심대(2030)는 상실감과 분노를, 사오십대(4050)는 상대적 박탈감을, 육십삼대(6070)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칼날 위에 선 자세로 성찰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정문회 후보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안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한국헌법학회 회원으로서 학술대회와 끝난 후의 만찬에서 앞자리에 앉은 조국 후보자를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별 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촉망받는 신진학자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보와 정의의 아이콘처럼 생각했다. 나도 실망이 크다.

8월 23일(금), 고려대와 서울대에 서 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있었다. 고려대생들은 '입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라. 조국은 사퇴하라. 자유 정의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고 외쳤다. 조국의 특권과 위선에 분노한 서울대생들은 '후안무치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사퇴와 서울대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총학생회 입장을 발표하고, 8월 28일(수) 총학생회 주최로 2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더라도, 전문가단체인 대한의학회와 대한병리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학회 등의 주장과 서울대생과 고려대생들의 주장은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

국민여론도 많이 악화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긍정 평가는 46%로 내려갔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39%가 되고 자유한국당은 31%를 넘어섰다. 여론은 변할 수 있지만, 이런 민심의 움직임을 계속 무시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에 환호했던 많은 국민들은 지금 고국 의혹 앞에서 허탈하고 분노하고 있다. 더구나 조국 후보자는 평소 '개전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 개전에 사는 용어, 개구리, 개재도 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역설했다. 자기가 한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자기를 치는 모습이기.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과 싸우는 형국'이라고 풍자하기도 한다.

개인과 조직도, 국가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進)과 물러나는 퇴(退)를 때에 맞게 분명히 잘 해야 한다. 앞으로 나아가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물러나는 적절한 때를 알아서 지혜롭게 물러나는 일은 더 중요하다. 물러나는 때를 늦추거나 놓쳐버리면 치욕과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

대법관 출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받은 14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니,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 모 의원의 '국민이 번 돈 내놓으라고 했느냐? 신(新)매관매직이다'고 공격해서 낙마시켰다. 나는 작년 한국헌법학회 모임 후, 만찬 장소에서 헌법학자들에게 헌법 위에 무슨 법이 있는 줄 아느냐?고 물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자문자답한 일이 있다. 이 시점에서 운동화원과 가족 펀드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형세여서 살다고 달리는 호랑이 등 위에서 혼자서 뛰어내릴 수도 없다. 그 추운 겨울에도 23차 촛불집회에 개근(開勤)한 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社說

아동 '놀 권리' 보장 해줘야

학교에 다니는 아동 10명 가운데 4명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걱정이다. 이 모든 것이 임시 경쟁으로 인한 공부 부담 때문이란. 어른들이 빼앗은 '놀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6점)보다 한참 낮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 2510명 가운데 38.0%가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9~11세도 16.1%가 잠 자는 시간이 모자란다고 했고 12~17세 아동은 절반에 가까운 49.0%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9~17세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학기 중 8.3시간, 방학 중 9.5시간이었다. 학기 중에 9~11세 아동은 평균 9.2시간을 잤고 12~17세는 7.8시간을 잤다.

잠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학원·과외 때문이라는 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야간 자유허

습(18.7%)과 가정학습(13.0%), 게임(12.9%) 등이 뒤를 이었다. 아이들의 잠을 빼앗은 요인 1~3위는 모두 '공부'였다.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아동은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인은 조금 달랐다. 부모의 소득이 많고 거주지가 대도시에 가까울수록 학원·과외 때문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한 아동이 많았다. 대도시 52.1%, 중소도시 43.3%, 농어촌 20.1% 순이었다.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아동은 무려 66.2%가 학원·과외로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아동(27.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반면 학원·과외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야간자유허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고 했다.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아동의 25.9%가 수면 부족의 원인으로 자유허습을 꼽았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자.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 알곡을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안전이라 함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방을 통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안전에 대해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항상 사건 및 사고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작은 습관 및 예방으로 인해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고, 절대로 안전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되며 타협을 해서도 안되는 사항이다.

공사현장에서의 안전, 휴가철의

안전 운전자의 안전 등 안전에 관하여서는 우리 모두 알고 있게 되는 사항이지만 나는 관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모두 삶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맡은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삶의 안녕과 행복을 이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항상 어디서든지 대기를 하고 있지만 출동 하는 때 순간마다 국민들이 무사히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동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아무런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119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지)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편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